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4월 7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 당 자	• 산업 폐수과장      김현주 ☎440-5531 • 담당자              황수연 ☎440-553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측정대행업체 10개소 정도관리 맞춤형 컨설팅**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정도관리 기술지원 교육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일 관내 환경분석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 교육은 ‘2023년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받는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체 10개소 관계자 2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제도상 의무 교육이 아니지만 측정대행업체의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 2016년부터 선제적으로 시작해 지속하고 있는 사회 공헌 사업이다.

환경부는 시험·검사기관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환경부 평가에 대비해 정도관리 제도의 변경 사항, 품질

시스템의 유지 방법, 분야별 평가 관련 질의응답 등의 정도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이 매우 유용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인천시는 측정대행업체의 측정 결과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분석 데이터로 활용돼 환경관리에 이용되므로, 이번 교육이 높은 수준의 분석환경을 조성하고 발생원별 최적 관리를 이끌어 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을 주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술지원이 관내 측정대행업체의 정도관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관내 측정대행업체들의 품질 문서 관리 시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기술지원이 정도관리 현장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고 관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석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돼 기쁘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식 나눔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 <붙임> 관련 사진



<사진 1> 품질시스템 교육



<사진 2> 실험실 견학